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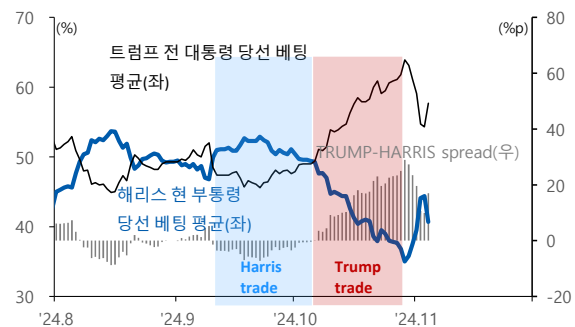


대응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미국 대선

1. 미국 대선, 이제는 대응의 영역

- 미국 대선 투표의 종료가 다가오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투자전략은 예측과 베팅의 영역에서 대응의 영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
- 이와 관련, 시장에서 두 후보가 각각 당선 가능성 우위를 점했던 시기가 존재. 당시 시장의 반응을 참고할 필요
- 두 구간의 특징은 대체로 트럼프 트레이드 하에서 주가는 부진하고 달러는 강했다는 점. 반복되거나 반전되거나의 상황 임박

9월 하순과 10월 하순 각각 진행된
해리스 트레이드와 트럼프 트레이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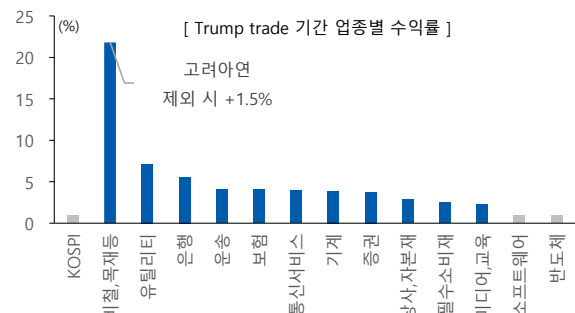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시장이 제시하는 업종별 대응

- 같은 기간 국내증시에서도 미국 대선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
- 해리스 트레이드 하에서 2차전지 및 KOSDAQ 강세. 외국인 수급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전환되면서 순매도로 전환
- 트럼프 트레이드 하에서는 유틸리티, 통신과 같이 방어적이거나 금융, 운송, 기계 정도에 관심 이어질 전망

트럼프 트레이드 기간 국내증시 강세 업종은
방어적이거나 금융업, 운송, 기계 정도로 요약 가능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1. 미국 대선 변동성의 영향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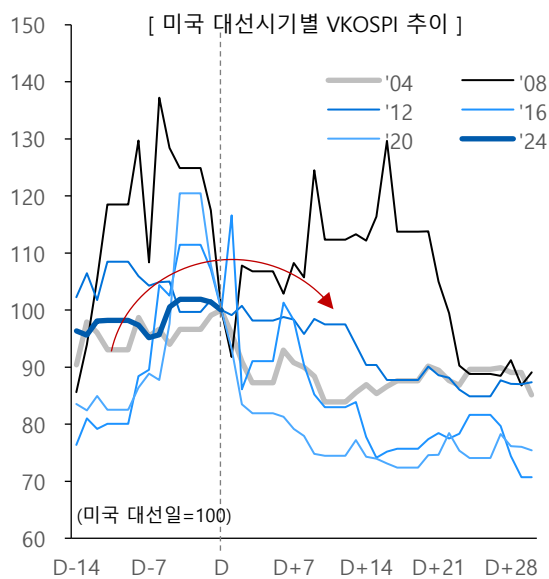
미국 대선 투표 종료가 임박했다. 곧 개표가 진행되며 시장의 변동성은 정점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. 한국 시간으로는 금일(11/6일) 오후부터 사전투표 결과 및 개표 진행 현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.

일정상으로는 경합주 중 가장 먼저 투표가 마감되는 조지아(선거인단 16인, 한국시간 11/6일 오전 9시 투표 마감)의 개표 현황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예상된다. 접전이 예상된 만큼 결과 발표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.

미국 대선과 관련해 필자가 최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당선되는 경우 국내증시의 하락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, 아마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미중 무역분쟁의 악몽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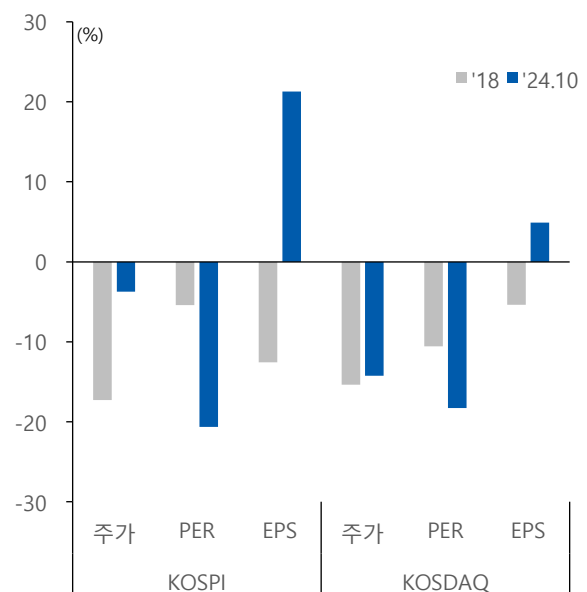
2018년 연간으로 KOSPI는 -17.3%, KOSDAQ은 -15.4%의 약세를 기록했다. 올해는 10월말까지 각각 -3.7%, -14.3%를 기록 중이다. 이익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의 하락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.

[차트1] 미국 대선을 지나면서 증시 변동성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경향



자료: Quantiwis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2] 2018년 연간 주가 및 밸류에이션의 변화와 올해 10월까지 변화를 보면 밸류에이션 하락 이미 충분히 진행



자료: Quantiwis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이제는 대응의 영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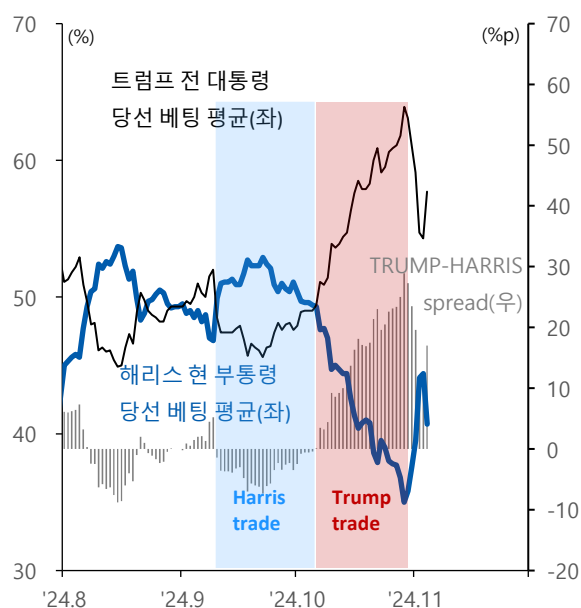
이미 지난 미국 대선 자료("EVEN하지 않은 Dishes", 10/23일)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우위를 제시하긴 했으나, 지금부터는 결과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예측과 베팅의 영역이라기보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판단된다.

대선 유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당선 가능성 우위를 유지했던 구간이 있었고, 당시 시장 반응을 통해 당선 유혹이 점차 드러남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물론 완전히 대선 후보의 당선 확률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, 글로벌 금융 시장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변수 중 하나가 미국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시장의 반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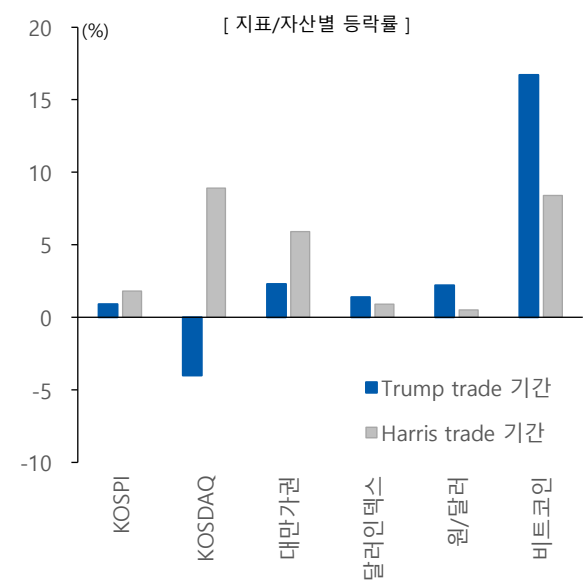
예컨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시기에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고,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지는 경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

[차트3] 9월 하순과 10월 하순 각각 진행된 해리스 트레이드와 트럼프 트레이드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4] 트럼프 지지율 상승구간에서 주가 부진, 달러 강세, 가상자산은 상승폭 확대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3. 시장이 제시하는 업종별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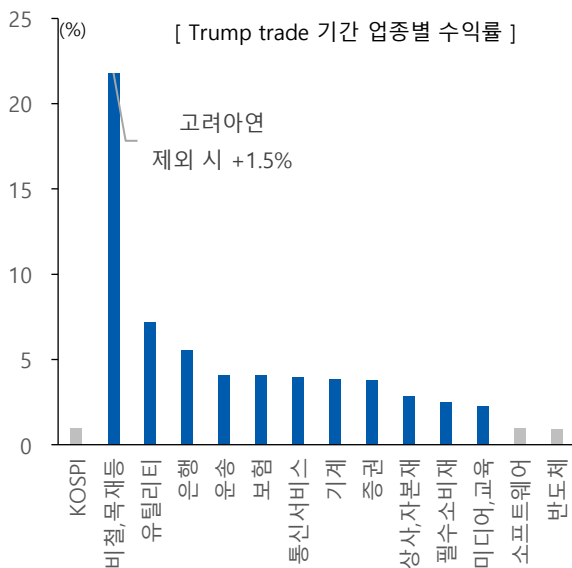
결국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현재 미국정부의 정책 지속성 및 안정성이 유지, 달러 강세 진정 측면에서 국내증시를 포함한 미국 이외 지역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며, 특히 국내에선 2차전지 업종 및 KOSDAQ의 반등이 예상된다.

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성화됐던 구간(10/4~30일)과 해리스 트레이드가 활성화됐던 구간(9/10~10/4일)의 업종별 등락률을 비교해보면, 트럼프 트레이드 하에서 유틸리티, 통신과 같은 방어적 업종과 금융업이 강세를 보였다.

반면 해리스 트레이드 하에서는 2차전지 밸류체인 및 KOSDAQ의 강세가 두드러졌다.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순매수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.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 구간별 순매수 양상이 구별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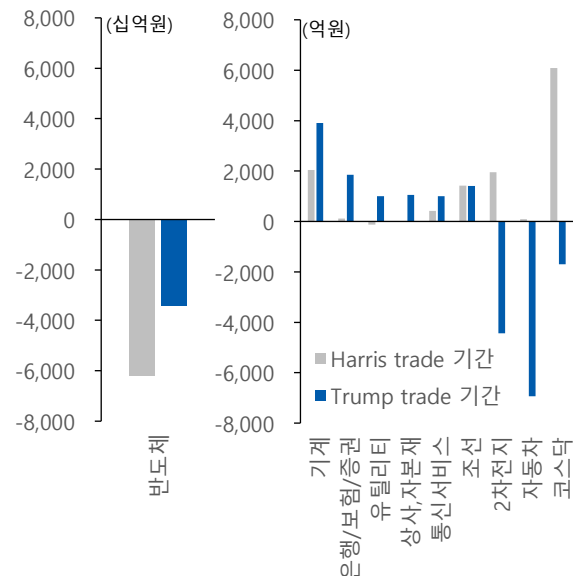
따라서 당선인 윤곽에 따라 단기 시장 변동성이 정점을 향하는 국면에서 이미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.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기계, 금융 및 방어적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.

[차트5] 트럼프 트레이드 기간 국내증시 강세 업종은 방어적이거나 금융업, 운송, 기계 정도로 요약 가능



자료: Quantiwis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6] 외국인 순매수 측면에서도 유사한 양상, 트럼프 당선 시 기계, 금융 및 방어적 업종들 관심 예상



자료: Quantiwis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